

“정치적 불확실성, 3분기 이후 소멸”

한은, 과거 사례 결과 1~2분기 위축되다가 3분기 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 형 패턴 나타나

최순실 사태 등으로 야기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올 3분기 이후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은은 ▲노태우 정권의 수서택지 비리(1990년 10월~1991년 3월)와 14대 대선(1992년 9~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1997년 6~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및 16대 대선(2002년 6~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및 기각(2004년 3~5월), 17대 대선(2007년 10~12월) ▲이명박 정권의 소고기 수입 반대(2008년 4~6월), 18대 대선(2012년 8~12월) 등 과거 사례를 평균값을 내 살펴본 결과, 고용 및 산업 활동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기간 이후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가 3분기 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 형 패턴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율은 2.1%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직후 1.2%까지 큰 폭 하락하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1.9%로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자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하락폭이 크고 회복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뿐 아니라 3분기 이후 중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반면, 서비스업은 둔화폭이 크고 회복



청소년 요금제 할인 지난달 31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청소년 요금제 할인에 나선 이마트 알뜰폰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알뜰폰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최대 20% 추가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속도도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 7.2%에 달했던 제조업은 생산 증가율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직후 4.8%까지 하락했다가 3분기 이후 7% 내외로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은 4.6%에서 0.9%로 하락한 뒤 3분기 이후에도 2% 미만에 머물렀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하락폭이 건설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3분기 이후 급속히 회복됐다. 소비도 5.4%에서 3.7%까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 이후 상승 전환했

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즉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간 소비와 연관성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속도도 부진했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의 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은은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내 가구 인터넷 접속률 99.2%

우리나라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99.2%에 달하는 ‘인터넷 강국’임이 증명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3세 이상의 국민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2년 연속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 1위를 기록하게 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 수는 4364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36만명 증가한 506만명으로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이 전체 이용자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만 6세 이상 국민의 85%가 보유하고 있으며, 65세 이상도 10명중 3명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은 2011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2011년 81.9%→2016년 75.3%)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 평균 14.3시간으로 지난해에 비해 0.6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98.9%인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메신저 이용률은 92.5%를 기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65.2%가 이용하고 있다.

위치정보 이용률은 77.4%로 주로 20대와 30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이용서비스는 지도 확인(67.3%), 내비게이션(5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만5000가구 및 3세 이상 6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뉴시스

쉐보레, ‘볼트’ 판매 개시... 3800만원

최대 주행거리 676km... 순수 전기 주행거리 89km

한국지엠 쉐보레(Chevrolet)는 1일부터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REV) ‘볼트(Volt)’의 일반 고객 대상 판매를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볼트를 제공한 쉐보레는 올해 일반 고객으로 판매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상반기 출시 예정인 순수 전기차 볼트EV(Bolt EV)와 함께 전기차 제품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내연기관이 있는 전기차인 볼트(Volt)는 기존 1세대 모델 대비 96%가 줄어든 192개의 배터리 셀을 탑재해 전체 배터리 팩 하중의 10kg을 감량했다.

또 12% 효율 개선을 통해 전기차 수준에 가까운 최대 89km의 순수 전기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1.5l 가솔린 주행거리 연장 엔진으로 총 676km에 달하는 최대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중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가 50kW 내외의 전기 모터 출력으로 엔진이 수시로 차량 구동에 개입하는 반면, 볼트는 두개의 모터로 작동하는 볼텍(Volttec) 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모터 출력이 111kW에 달한다.

LG화학이 공급하는 18.4kWh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 완충전기로 5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다.

볼트(Volt)의 판매 가격은 3800만원이다. 최대 770만원의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반영할 경우 30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뉴시스

2월 말 선보일 LG G6 ‘판도변화’ 이끌까

LG전자가 2월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글로벌 통신 전시회 MWC(모바일 월드콩그레스)를 통해 선보일 전라폰 G6가 시장 판도변화를 야기할지 주목된다.

LG전자는 2월 27일부터 3월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 개막을 하루 앞둔 2월 26일 낮 12시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방침아래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조성진 부회장은 이번 MWC에 직접 참석해 G6 출시를 핑길 예정이다.

LG전자는 G6를 통해 그동안 부진을 면치못해왔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전을 도모한다는 의지다.

이에따라 출시시기도 3월 중순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시 시기가 늦어져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출시로 분위기를 먼저 끌어가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대해 최근 열린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올해 상반기 선보일 전라 스마트폰인 G6의 경우 무리한 차별화를 추구하지 않고 다수의 고객에게 중요한 기능과 품질, 매력적인 가치를 완성도 높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준호 LG전자 사장은 올초 미국에

서 열린 CES2017에서 기자들을 만나 신제품은 모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지난 G5와 명확하게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에서도 지난 G5 때 주력 마케팅 용어로 사용한 ‘플레이(Play)’를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제품 공개를 위한 언론인 초청장에 포함된 소개 문구도 ‘See More, Play More(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즐기세요)’이 채택됐다. 여전히 즐거움이라는 마케팅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방침을 고수

“모뎀화 하지 않고 무리한 차별화 안해”

했다. 공개된 스펙도 주목을 끈다. 화면의 세로와 가로 비율이 18:9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UX)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고해상도(1440X2880)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1인치당 화소수(Pixel Per Inch, PPI)가 564개에 이른다.

지난해 경쟁사의 논란을 의식해 안전성도 강화했다. 신제품에 히트파이프를 적용해 발열을 낮추고, 국제 기준보다 높은 다양한 품질 테스트를 도입했다. 신기술로 원격 AS에 순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